

# 『임경업전』의 형성시기

- <일본 외무성장판본>을 주목하며 -

박재민 (서울대)

1. 序
2. 研究史
3. 雨森芳洲의 圖書目錄
4. 外務省本
5. 最先本
6. 結

## 1. 序

『林慶業傳』<sup>1)</sup>은 실존인물 林慶業<sup>2)</sup>의 활약상을 다룬 소설로서, 비교적 이른 문헌인 『熱河日記』, 『象胥紀聞』 등에 그 題名을 보이며 현재까지 약36종의 이본<sup>3)</sup>이 학계에 알려져 있는 조선 후기 국문 소설사의 중요 작품 중의 하나이다.

김태준은 일찍이 『임경업전』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였다.

萬夫가 抵當치 못할 膽勇과 智謀가 百出하는 韜略! 이는 李朝에 들어서는

- 1) 이 전의 명칭은 『님경업전』, 『님경업전』, 『님경업전이라』, 『님장군전』, 『님장군전이라』, 『림경업전』, 『림장군전』, 『임경업전』, 『임경업전』, 『林慶業傳』, 『林將軍傳』, 『林忠臣傳』 등으로 다양하나, 통칭하여 '林慶業傳'이라 하겠다.
- 2) 임경업(1594-1646)은 병자호란 당시에 실존했던 인물로서 『王朝實錄』, 『承政院日記』, 『通文館志』, 『公私見聞錄』, 『練藜室記述』, 『林忠愍公實記』, 여타 문집 등에 그 기록이 다수 전하여 그 역사적 위상을 알게 한다.
- 3) 36종은 이복규(『林慶業傳研究』, 집문당, 1993.)에 의한 것이다.

반드시 손가락을 林慶業에게 꼽는다 …… 林忠愍의 一生이야말로 丙亂以後에 누구든지 欽慕하고 哀悼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漢文本 ‘林忠愍公實記’는 正祖의 命編이지만은 達川에 廟宇를 세운 것은 英祖二年의 일인즉 그의 劇의生涯는 그보담 훨씬 먼저 國文本으로 傳讀되었을 것이다.<sup>4)</sup>

이 언급은 간결하긴 하지만 이 후 『임경업전』의 연구방향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는데, 임경업의 역사적 위상, 소설화한 이유, 소설의 발생 시기에 대한 나름의 결론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언급이 모두 이후 연구자들의 동조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첫 두 항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실존 자료가 엄존함으로 큰 이견이 있을 수 없었으나, 발생시기에 대한 마지막 부분은 이후 연구자들에게 오랫동안의 論爭處가 되었다.

발생시기에 관련한 이 논쟁은 단순히 한 작품의 성립시기 규정에만 의의가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면이 있다. 우선, 역사가 소설화한 드문 사례에 속하는 작품인 바, 이 작품이 소설화된 시점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면 역사가 소설화하는 속도를 가늠할 중요한 한 자료가 되며, 18세기 초반에 성립되었을 것으로 믿어지는 바, 당대 국문소설의 존재를 보장 확인시켜 주는 귀중한 사례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경업전』은 위의 사항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였다. 이는 아직도 이 작품의 성립시기에 대해 연구자들마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최초본의 본 모습을 정확히 짚어 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로 본고는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임경업’ 혹은 『임경업전』에 관련한 자료와 언급들을 분석하여 『임경업전』의 발생 시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현전본 중 발생당시의 모습을 가장 많이 지닌 最先本을 확정함을 과제로 삼는다.

## 2. 研究史

앞서 인용한 김태준의 발생시기추정(영조2년1726년 훨씬 이전)은 ‘『임경업

4) 김태준, 『조선소설사』, 학예사, 1939.

전』 18세기 초반 성립설'에 대한 유력한 인용근거가 되어주긴 하지만, 사실 긴밀한 관계에 있는 논거에서 성립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영조대에 그의 廟宇가 세워진 사실은 신빙할 만한 문헌에 기반한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나,<sup>5)</sup> 그의 묘우가 세워진 것만으로는 그의 소설 발생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그에 관련한 이야기들이 설화 혹은 소설의 형태로 유행하였고 그것이 임금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었을 것임을 짐작하는 것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겠으나, 그것은 가설적 추정일 뿐 시기를 확정할 근거는 되지 못하는 것이다.<sup>6)</sup>

이런 점으로 작품자체가 가진 특징에 근거하여 형성시기를 추정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이의 첫 시도는 윤영옥<sup>7)</sup>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경관27장본>을 『임충민공실기』와 비교 분석하며, <경관 27장본>이 『임충민공실기』의 주요 항목을 취택하고 있는 바, 이 소설의 성립은 『임충민공실기』 찬술(1791년)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그의 추정은 몇 가지 난점<sup>8)</sup>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가장 큰 문제점은 소설외적 자료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그는 김태준이 이미 언급한 『상서기문』(1794년)의 기록

日本 象胥紀聞及拾遺에 依하면(嘉永三年1850년 傳寫本에 依함) 朝鮮의 通俗物語條下에 ‘崔忠傳·林慶業傳·伯龍傳, 其他宋代物語 玉輪梨傳·淑香傳·李白慶傳·三國志 등 通俗物多’라고 하였으니 그 象胥紀聞이 純祖時代의 作이라고 假定할지라도 ……숙향전의 저작은 영정시대에 소급한다.<sup>9)</sup>

5) 영조2년 丙午(1726년)에는 湖西에 諸生들이 達川에다 忠烈祠를 建築하였다. 丁丑(1697년)에 忠州人 進士 鄭津 등이 發文을 해서 準備하고 建築한지 30년만에 비로소 竣工이 되어 遺像을 奉安하였던 것이다. (九十九年丙午 湖西諸生建忠烈祠于達川 丁丑 忠州進士鄭津等 發文營建 至是始成 奉安遺像) (『임충민공실기』, 조선광문회 중간, 1913, p.74.)

6) 이런 식의 시기 추정이라면, 이 소설의 발생 시기는 묘우가 완성된 때가 아니라 임경업이 신원(伸冤)되어 그의 사당 건립이 시작되던 때(1697) 이전으로 잡아주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7) 윤영옥, 『임경업전연구』, 『국어국문학연구』15집,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3.

8) 最先本이 아닌 18세기 중반에야 나타난 것으로 여겨지는 27장본을 기준으로 하였기에 정밀한 분석을 가하면 가할수록 시기 추정은 후기로 결론날 수밖에 없다.

9) 김태준, 『조선소설사』, 학예사, 1939.

마지 반영하지 않은 채 시기 추정을 진행했는데, 김태준이 소개한 이 기록은 시기추정에 확고한 한 기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결코 도외시해서는 안 되는 자료였다. 『상서기문』이 1794년 당대에 이미 서울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설 작품을 반영한 기록물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아무래도 『임경업전』의 형성도 유통기간을 고려하여 이보다는 다소 빠른 시기로 잡아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상서기문』보다 더 빠른 시기에 나온 『열하일기』(1780년)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 시기추정도 진행되었다. 김기현은 『열하일기』에서 보이는 다음의 기록

사당 속에서 노는 건달패 수천 명이 왈칵하게 떠들어 마치 무슨 놀이터 같다.…… 앉아서 『水滸傳』을 읽는 자가 있는데, 못사람이 뺨 둘러앉아서 듣고 있다. 그는 머리를 흔들면 코를 벌름거리리는 꼴이 눈에 사람이 뜨이지 않는 듯하다. 그 읽는 데를 본즉 火燒瓦官寺의 대목인데, 외는 것은 뜻밖에 『西廂記』다. 글자를 모르는 까막눈이건만 외기에 익어서 입이 미끄럽게 내려간다. 이것은 꼭 우리나라 네거리에서 『임장군전』을 외는 것 같다.<sup>10)</sup>

를 근거로 『임경업전』의 발생 시기를 다소 앞당겨 확정하였다.<sup>11)</sup> 이를 바탕으로 그는 『임경업전』은 적어도 1780년 이전에는 이미 만들어졌고 좀 더 좁혀 숙종대(재위 1675-1720년)에서 영조대(재위 1725-1775년)까지의 약 100

---

비록 김태준이 『상서기문』의 후대 필사본을 인용하긴 했지만, 이미 1960년도에 김동욱에 의해 이에 대한 補正이 있었다. 윤영옥의 언급이 1973년임을 감안할 때, 『상서기문』의 서지사항에 대하여는 그 자신의 면밀한 재조사가 있어야만 했다. 金東旭이 정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正祖 18년(1794년) 山田土雲의 <象胥紀聞>에 張豐雲傳 九雲夢 崔賢傳 蘇大成傳 張朴傳 林將軍忠烈傳 蘇雲傳 崔忠傳 泗氏傳 淑香傳 玉橋梨 李白慶傳 三國志 등이 諺文으로 쓰여졌음을 밝히고 있음으로써도……” (『춘향전연구』, 연세대학교출판부, 1960.)

10) 廟中然賴遊者數千人 鬪熱如場屋 ……有坐讀 水滸傳者 衆人環坐聽之 波頭鼻 傍若無人 看其讀處則 火燒瓦官寺 而所誦者 乃西廂記也 目不之者而口誦溜滑 亦如我東巷肆中 口誦林將軍傳(『열하일기』1, 민족문화추진회, 1976) p.540.

11) 김기현, 『校注 林將軍傳』, 예그린출판사, 1975. pp.162-163.

년 사이에 성립된 것으로 보았다. 이는 문헌적 정황을 이용한 것이었기에 발생의 하한선을 확정해 주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숙종대에서 영조대까지라는 막연한 기간을 최종결론으로 제시하였기에 발생 시점에 대한 궁극적 해결에는 未洽한 느낌이 있다.

이윤석은 『상서기문』과 『열하일기』의 기록을 眼前에서 목격하면서도 여전히 ‘18세기 후반’으로 그 시기를 고수하였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였다.

그러니까 『임장군전』을 구송하는 사람은 대본이 있어서 그 대본을 보고 읽는 것이 아니라 『임장군전』의 내용 전체를 머릿속에 암기해서 줄줄 외우는 것이다. 그렇다면 박지원이 얘기한 이 시기의 『임장군전』은 아직 문자로 정착되기 이전의 유동적인 구비문학 단계의 『임경업전』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다

…… 18세기 중반에는 아직 한글소설이 성행하기 이전이고…18세기 말기에 가서야 우리나라에서는 한글소설이 본격적으로 유행하게 되는데 『임경업전』도 이러한 유행의 물결을 타고 한글로 번역되고 또 한글소설로 유행이 되었을 것이다<sup>12)</sup>

한글 소설이 18세기 후반에나 본격화되었다는 그의 진술은 그가 일관적으로 견지하는 주장이기는 하지만, 이런 주장은 이보다 上及하는 자료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수정되어야만 하는 가설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결정적 자료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유연하게 그 자료로 재추정을 행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열하일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임경업전』을 외는 장면을 ‘구비문학의 단계’일 뿐으로 상정한 것은 자료를 공정히 해석한 것이 아닐뿐더러 18세기 후반에 들어와서야 한글소설이 유행되었다는 가설도 자료를 폭넓게 접할 수 없었던 연구사의 한계에 불외한다. 18세기 초반에 이미 한글소설 『숙향전』이 존재했었고<sup>13)</sup>, 역시 당시에 이미 한글번역본 『옥교리』가 존재했었다<sup>14)</sup>는 근래의 文證的인 연구 결과를 반박할 수 없다

12) 이윤석, 『임경업전연구』, 정음사, 1985, pp.135-150.

13) 조희웅·松原孝俊, 「『淑香傳』의 형성연대개고-일본측 자료를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12, 한국고전문학회, 1997.

14) 정병설, 「조선후기 동아시아 어문교류의 한 단면」, 『한국문화』 27,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

면 이 주장이 근거하고 있는 ‘한글소설 18세기 후반 성행설’은 필연적으로 수정되어야만 하겠고 따라서 이 주장 역시 再考의 대상에 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서대석은 <경관27장본>과 <세창서관 활판본>을 비교한 후에, <경관 27장본>이 이 중 선행한 작품임을 추론한 후, 이의 마지막에 ‘임장군의 사당을 세우는 삽화’가 있음에 주목하여

경판본(27장본) 『님장군전』의 작품연대는 작품말미에 임장군의 사당을 달 천에 세웠다는 내용으로 보아 영조 2년 이후에 창작된 것이 확실하다<sup>15)</sup>

라 결론 내렸다. 영조2년이라면, 1726년이겠는데 본고가 추정하는 시기에 매우 근접한 수치로 판단된다. 더불어 <세창서관본>이 『임충민공실기』 중, <백봉석찬> 「대명충의임공전」을 참조하여 형성되었음을 문증한 점도 발생시기 연구 과정에서 얻은 큰 수확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시기에 관한 그의 추정은 현전 최고본을 <경관 27장본>으로 전제한 상태로 이루어졌다는 점, 상한선은 밝혔으나 하한선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補論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 『임경업전』이 여러 이본을 가지고 있음은 미리 밝힌 바와 같은데, 이창현<sup>16)</sup>에 의하면 <경관27장본>은 1780년 판각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관47장본><sup>17)</sup>을 축약한 후행본에 해당한다고 한다. 따라서 <경관 27장본>은 소설의 최초발생시기를 추정함에는 적절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 후대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경관 47장본>에 비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구소, 2001.

15)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5, p.193

16) 이창현, 『경관 방각소설 판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17) 이 판본은 이창현(상계서)이, 현전하는 <연대45장본>을 기반으로 하여,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한 판본이다. 따라서 현존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연대 45장본> 중, 총2장이 다른 부분 분량의 배에 해당하는 분량을 수록하고 있는 바, 이의 원래 형태는 총 47장본이었을 것이라 추정할 것은 매우 타당한 것이기에 그의 명칭을 빌린다.

## 3. 雨森芳洲의 圖書目錄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비록 작품의 발생 시기 확정에 대한 완전한 결론은 될 수 없었지만, 작품의 내적 구조와 외적 기록을 망라하여 검토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이 과정에서 『상서기문(1794)』과 『열하일기(1780)』의 기록을 발굴할 수 있었다는 점도 큰 수확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이런 알려진 자료 외에도 『임경업전』의 존재를 알려주는 유력한 자료가 있어 주목된다. 1997년, 조희웅이 『숙향전』의 형성연대를 재고하는 과정에서 소개<sup>18)</sup>한 雨森芳洲(1688-1755)의 소장도서목록이 그것이다. <芳洲履歷>의 ‘芳洲著述’조의 내용을 재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橘窓茶話…… 以下 朝鮮語 全一道人(도사나리), 交隣須知, 隣語大方, 崔忠傳, 淑香傳, 玉嬌梨, 林慶業傳, 書狀錄, 常談 以下 四十部 (芳洲書院所藏, 「芳洲著述」, 『芳洲履歷』)<sup>19)</sup>

雨森芳洲는 18세기 전반기 인물이다. 그런 그의 저술도서목록<sup>20)</sup>에 조선어 『임경업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18세기 전반기에 한글본 『임경업

18) 조희웅·松原孝俊, 「『淑香傳』의 형성연대재고, 일본측 자료를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12. 한국고전문학회. 1997.

19) 조희웅·松原孝俊 상계서 재인용, p.122.

20) 그런데 여기서 ‘著述’이란 말의 뉘앙스가 이상하다. 조희웅은 “그의 저작이(란 의미가) 아니라 조선어로 된 소설의 번역이었음은 물론이다.”라 하여 저술을 ‘일본어 번역’ 정도로 파악했는데, 다소 이상한 느낌이 있다. 위는 전체 문맥상 ‘조선어 저술’의 의미로 읽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와 관련된 소설들 중, 『최충전』과 『숙향전』은 첫 머리가 국문소설과는 다소 다른 형식으로 시작되고 있다. 거례하면 다음과 같다.

『최충전』: 네 신나시절에 최충이라 허는 명시 이시되 흥문거죽이요 지죄 유여하나 늘토록 급대를 못하고 <1883 외무성장판>

『숙향전』: 네 宋時節의 南陽 쌍의서 사는 金典이란 사람이 이시되 二八의 文章의 글을 일으니 <경도대학본, 1850년 필사>

이러한 형식은 현전하는 교판본국문소설로 본다면 드문 편에 속하는데 이것이 그와 관련된 두 소설에서 발견된다는 점은 다소 의심을 불러 일으킨다. 그가 소설을 단순히 필사만 했다면 이런 현상이 생기기 어렵지 않았을까.

전』이 이미 존재했음을 확정할 수 있는 결정적 근거가 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언제쯤 그가 『임경업전』을 입수하고 학습서로 이용했었는지가 문제로 남는다. 이 과정을 재구할 수 있다면 『임경업전』의 존재시기를 보다 자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전기에 따르면, 그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하여 1703년 처음 한국에 들어와 초량왜관에서 약 2년을 머물고, 이후 1729년에 다시 한국을 방문하여 다시 2년을 머물렀다고 한다.<sup>21)</sup> 소설을 수집하게 된 것은 한국어 학습을 위해서였는데, 조희웅이 소개한 그의 회고록에는 이러한 목적이 자세히 나타난다. 글을 재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某가 35세시(1702년)에 參判使都船主로 조선에 처음 건너갔다. 그 곳의 모습을 見聞했던 바, 다시 信使를 보낼 때에 조선어를 모른다면 외교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對馬로 돌아오자마자 조선어에 능통한 사람 밑에 가 학습을 한 다음, 이듬해 36세시(1703년)에 조선에 다시 건너가 꼭 2년간 머무르며 交隣須知 1책, 酉年工夫 1책, 乙酉雜錄 5책, 常話錄 6책, 勸懲故事諺解 3책을 짓고, 그밖에 淑香傳 2책, 李白瓊傳 1책을 스스로 베끼어 매일 통사들이 있는 곳으로 가 학습하였다.” <雨森芳洲編著, <芳洲外交官關係資料·書翰集: 雨森芳洲全書三>, 關西大學 東西學術研究書資料集刊 十一-十三(관서대학출판부, 1982), p.308.<sup>22)</sup>

결국 소설에 대한 그의 관심은 1703년부터 이미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 차례로 한글본 소설들을 취득했음을 추정할 수 있겠다. 1703년도에는 『숙향전』과 『이백경전』만 거론되었기에 임경업전의 취득은 그 이후의 어느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의 행적을 더듬어 좀더 적극적인 추정을 해 본다면 그가 한국을 다시 찾았던 1729-1730년경일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하지만, 확정할 수는 없는 바, 다만, 임경업전은 그의 沒年 1753년 이전에는 분명히 성립되어 있었다 보아야겠다.

21) 권두환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제94회 학술발표회 요지>(2004.4.29)에서 재인용. 원 자료는 上垣外憲一, 『雨森芳洲 元祿享保の國際人』중공신서 945, 중앙공론사, 1989.

22) 조희웅·松原孝俊 상계서 재인용.



## 4. 外務省本

재인용된 위의 기록들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는 단순히 『임경업전』의 발생시기 확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임경업전』을 소장하고 있었던 이가 일본의 한국어 전문기관의 始原이 된 ‘韓語司’를 설립한 인물인 雨森芳洲란 점은 현전하는 『임경업전』의 最先本에 대한 좋은 추정근거가 된다.

현전하는 『임경업전』 중, 1881년 일본 외무성에서 발간한 본이 있다. 이 본은 <연세대 45장본><sup>23)</sup>과 표기법 정도만의 차이를 가진 거의 동일한 본이었기에 그간 이본 연구에 있어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더구나 <연대 45장본>은 형태로나 간기<sup>24)</sup>로나 현전본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어 왔고, <외무성장판본>은 <연대본>에서 강하게 영향받은-극단적으로 말하면 복사본 정도- 피상적 흔적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출판 연도 역시 1881년으로 비교적 후대이기에 그 자체가 가진 중요성은 간과된 채로 연구에 활용되었다. 이런 상황은 이복규의 다음과 같은 태도에서 잘 대변된다.<sup>25)</sup>

이 본은 일본 외무성장판본과 표기상의 차이만 지닐 뿐 완전히 일치한다. ……목판 41장본(본고에서 말하는 연대 45장본, 필자 주)은 일본 외무성장판본의 모본임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계열의 대표 이본으로 삼을 수 있다. 하지만, 이본 비교시에는 일본 외무성장판본을 대상으로 하기로 한다. ……일본의 무성장판본이 그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굳이 낙장본인 이 본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이다.

23) <연세대 45장본>은 일시에 이루어진 책판에서 인출된 것이 아니다. 이창현(상계서)에 의하면, 이는 원래 47장본이었는데 보각을 하는 과정에서 27,28장, 41,42장이 각각 한 장으로 축약되어 2장이 줄어들었기에 총 45장으로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고 한다.

24) 이 본에는 작품 말미에 “歲庚子孟冬京畿開板”이란 간기가 있다. ‘庚子’년이라면 1900년, 1840년, 1780년, 1720년이 되는데, 이복규, 이윤석 등은 1840년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창현은 1780년으로 추산하고 있다. 근래의 연구자들 중, 이 판본이 현전 임경업전 중 가장 오래된 것임에 이의를 가진 이는 없다.

25) 이복규, 『林慶業傳研究』, 집문당, 1993.

그러나 <외무성장관본>의 이본적 의미는 연대본을 보조할 정도의 가치만을 가진 것이 아니다. <외무성장관본>은 18세기 초반 인물인 雨森芳洲의 조선어 학습 목록과 강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에 그 자체로도 얼마든지 임경업전의 ‘最先本’일 가능성을 농후히 가진다.<sup>26)</sup> 이는 雨森芳洲가 18세기 초에 이 작품을 조선어 학습 교재로 채택한 이후, 조선어 학습기관에서 지속되어 온 이 작품의 위치를 살펴보면 자세히 드러난다.

雨森芳洲는 1705년 일본에 귀국하여 조선어 학습기관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의 결실이 1727년에 대마도에 설립된 ‘韓語司’이다. 松原孝俊에 의하면 한어사는 그 후 약 140년 정도 한국어 교육의 요람으로 존재하다가, 1868년 명치유신을 맞이하며 폐교되지만, 이를 이어받아 1872년에 대마도에 다시 조선어학소가 설치되고 이후 1873년에는 이를 부산의 초량으로 옮겨졌다가 1880년 일본 동경외국어학교에 조선어학과가 설치되면서 폐지되었다고 한다.<sup>27)</sup>

그런데 교육기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어사에서 설정되었던 교과과정은 거의 변동 없이 계승되었던 듯하다. 동경외국어 대학교의 교과과정에 있던 소설작품들이 부산의 조선 어학소(1873-1880)에서도 그대로 보이고, 이는 다시 일본측의 기록인 상서기문, 다시 雨森芳洲 자신의 학습서와 도서 목록에까지 그대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병설은 상계 논문<sup>28)</sup>에 이를 도표화해 두었는데 재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雨森芳洲 所藏目錄(1703-1705, 1729-1730): 淑香傳, 李白瓊傳, 崔忠傳, 淑香傳, 玉橋梨, 林慶業傳

『象胥紀聞』(1794): 張豐雲傳 九雲夢 崔賢傳 蘇大成傳 張朴傳 林將軍忠烈傳 蘇雲傳 崔忠傳 此外 泗氏傳 淑香傳 玉橋梨 李白慶傳

26) 정병설도 같은 취지의 언급을 한 적이 있다. “이 이본(외무성장관본 임경업전)이야 말로 창작 당시의 이본에 가장 가까울 가능성이 높으며”(미발표 논문, 「18·19세기 일본인의 조선소설학습과 조선관」, p.6.)

27) 松原孝俊 外(1997), 雨森芳洲と對馬藩 「韓語司」 設立經緯をめぐって, 日本研究 第12輯, 中央大學校 日本研究所.

28) 정병설, 「조선후기 동아시아 어문교류의 한 단면」, 『한국문화』27,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1.

釜山 朝鮮語學所 教材(1873-1880) : 玉橋梨, 淑香傳, 崔忠傳, 林慶業傳, 春香傳, 壬辰錄

이외, 1880년 당시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학습기관이었던 동경외국어대학교 교과과정에도 이 작품들은 지속적으로 이용됨을 본다.

舊外語朝鮮語學科(1880年)의 教科課程

하급반 : 淑香傳, 彰善感義錄, 九雲夢, 謝氏南征記

상급반 : 張敬傳, 玉橋梨, 崔忠傳, 林慶業傳<sup>29)</sup>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1881년 외무성에서 발간한 『임경업전』이 단순히 그 시대에 유행하던 『임경업전』을 모본으로 한 것이 아님을 암시하는 것이다. <외무성장판본> 『임경업전』은 『교린수지』, 『최충전』, 『옥교리』 등과 함께 대단히 오랜 연원을 가진 채 한국어학습소라는 폐쇄공간 속에서 보수적으로 계승되어 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한편, 당시 외무성에서 발간한 『임경업전』의 문법적 특질에 있어서도 이는 고행임이 드러난다.<sup>30)</sup> 두음법칙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점, (글 넓기, 친척이 로소엽시, 미양 니르되, 란시를 당하여, 무오년에 니르니 등), 구개음화가 빈번한 빈도로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점(테일 치민하고, 털마산성, 성텃, 턴은이 망극하고, 턴조 등), 문법상 고어로 판단되는 어휘의 흔적이 있다는 점 (되왓느이다, -이로소이다, 드려 가거지라) 등에서 이 이본이 저본으로 한 본의 고행을 짐작해 볼 수 있다.<sup>31)</sup>

29) 동경외국어학교일람, 1880, 1881년, (片茂鎮, <東京外國語大學所藏の‘交隣須知’>, 梅田博之教授 古稀記念論叢, 2001.4. p.880 재인용.)

30) 정병설에 의하면, 『최충전』에는 18세기적 교표기를 가진 어휘가 다수 나타난다고 한다. ‘맞쳐-맡겨’, ‘글내지 -화내지’, ‘그음알라 - 재배하라’ 등의 표기를 그 예로 들고 있다. (상계미발표 논문, p.6.)

31) 물론, 이러한 현상은 교소설에서 흔히 발견되기도 한다. 하지만, 빈도수로 볼 때, 임경업전은 다른 교본에 비해 잦은 느낌을 준다.

## 5. 最先本

이상에서 우리는 일본 <외무성장판본>이 <연대45장본>과 직접적 관련없이 18세기 전반부터 자체적으로 존재해왔을 가능성을 엿보았다. 조선어 학습공간에서 여타의 학습서와 함께 동일한 과정을 거치면서 1881년에 활자화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전술했듯이, <외무성장판본>은 <연대45장본>과 매우 내용상 매우 강한 친연성을 가진 작품이다.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발췌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연대본 : 대명 흥정말의 충청도 충주 달천의셔 스던 사름이 니스되 성은 남이요 명은 경업

외무성본: 대명 승정말의 충청도 충주 달천의셔 사던 사름이 잇시되 형은 립이요 명은 경업

연대본 : 이라 어려서부터 글읽기와 활쏘기를 부즈런히 하니 부모 크게 사랑허더라 나히

외무성본 : 이라 어려서부터 글읽기와 활쏘기를 부즈런이 하니 부모 크게 사랑허더라 나히

연대본 : 십세의 당허야 부친이 세상을 바리신이 삼년초토를 극진히 지닌 후의 모친과 어

외무성본 : 십세의 당허야 부친이 세상을 바리시니 삼년초토를 극진히 지낸 후에 모친과 어

연대본 : 린 동성 스형제를 거느리고 농업을 심씨 하니 가산이 요부허고 쏘흔 봉친을 지극

외무성본 : 린 동성 스형테를 거느리고 농업을 심씨 하니 가산이 오부허고 쏘흔 봉친을 지극

연대본 : 키햐야 범스를 예의 지내게 하니 이리므로 친척인이 노쇼업시 그 절형을 칭찬안이 흐리 업더라

외무성본 : 히햐야 범스를 례의 지내게 하니 이리므로 친척인이 로쇼업시 그 절형을 칭찬아니홀 이 업더라

그러나 이와 같은 강한 친연성과는 별도로, 이 두 작품은 서로 직접적 관계는 맺고 있지 못하다. 일본 <외무성장판본>이 1881년 몇 권의 책을 발행할 때, 그 책들이 모두 조선어 학습소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전래되어 오던 것이란 것은 전술했거니와, 이로 본다면 당시 외무성에서 저본을 삼을 만한 책들은 아무래도 그간 누적되어 왔던 그들 자체보유의 서적을 활자화한 것이라 보아야 옳을 듯하다. 또한, 연대본의 서지사항과 외무성장판본의 내용을 보아도 외무성장판본은 그간 몇 연구자들이 생각해왔듯이 연대본을 모본으로 하여 생겨나지는 않은 듯하다.

<연대45장본>은 21,23,38,47장이 낙장이며 27,28장과 41,42장은 결손되었던 것을 축약하여 각각 한 장씩으로 개판한 것인데, 이러한 낙장 부분과 결손부분이 외무성장판본에서는 원형 그대로인 듯이<sup>32)</sup> 나타나고 있다. 만약 외무성장판본이 연대본을 그대로 저본으로 삼았다더라면 일실된 내용을 전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외무성장판본은 연대본과 직접적 관계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sup>33)</sup>

32) 여기서의 '원형'은 외무성장판본과 연대본의 공통 저본을 염두에 둔 말이다. 연대본에서 낙장된 부분은 총 4장으로 각 장마다 필연적으로 서사의 단절을 가져왔다. 그러나 외무성장판본에서는 서사의 단절 없이 각 장에 해당할 정도의 서사분량(각 500여자, 20자×26행)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연대본에서 2장으로 축약된 부분은 원형이 총 4장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외무성장판본에서는 총 4장 정도의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연대본의 일부가 손실되어 후대에 보충되면서 축약(27·28장의 축약, 41·42장의 축약)이 이루어졌고, 그 책이 다시 유통되는 과정에서 낙장(21,23,38,47장)이 생겨났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33) 연대본의 몇 장이 낙장되거나 축약되기 전에 외무성장판본이 이를 보았음을 의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연대본의 낙장과 축약은 외무성장판본(1881년)이 출현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옳다. 축약을 통하여 연대본을 복원하려는 시도는 이것이 소설로서의 상품성을 갖추기 위한 시도라 볼 수 있는데, 이미 1850, 1860년대에 임경업전의 축약본인 27장본, 21장본이 출현하여 성행하였기에 1860년 이후라면 축약복원의 필요성은 이미 이 때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축약은 최소 1860년대 이전이라 보아야 할 것이고 이로, 외무성장판본 이전에 이미 축약복원이 이루어져 있었다고 보아야 하겠다.

그렇다면 이 두 이본이 가진 강한 친연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아무래도 이 두 본이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저본을 공유하여 생겨난 것이기에 가능했던 일로 풀이된다. 특히, 외무성장판본의 저본인 <조선어 학습소 교재본>이 18세기 전반에 형성되어 있었고, 연대본 대부분판의 형성시기도 18세기로 추정<sup>34)</sup>되기에 개연성은 성립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소의 의문이 발생한다. <외무성장판본>의 저본으로 추정되는 <조선어 학습서교재본>의 성립이 雨森芳洲의 沒年인 1753년을 하한선으로 가지고, <연대45본>의 성립이 간기 ‘歲庚子孟冬’를 기준할 때 1780년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특히 <연대 45장본>의 첫머리에 ‘조선국 언역사 기<sup>35)</sup>’라는 말과 작품 말미에 “경업전을 언문으로 번역하여 사람마다 알게 하기는 동국 충신의 말이며 혹 만민이라도 씨다라 본받게 하미라”라는 말이 첨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연대45장본>은 <조선어학습서교재본>과는 관련없이, 선행했던 한문본을 직접 번역했음을 알게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연대45장본>이전에는 한문 번역본이 없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그렇다면 1780년 이전에는 이와 동일한 내용을 가진 <조선어학습서교재본>이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심각한 모순은 두 가지 방향에서 해석이 가능하겠다. 하나는 <조선어학습교재>가 1753년 이전에 존재했음을 존중하여 ‘歲庚子孟冬’을 1780년도가 아닌 1720년도로 소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연대45장본>의 간기를 번역의 간기가 아니라 ‘板刻’의 간기로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자는 이미 서대석<sup>36)</sup>에 의해 제기되었듯이 『임경업전』에 ‘충주 달천에 사

34) 이창현은 상계논문에서 다음의 다섯 가지 근거를 들어 1780년도 발생설을 적극 주장하였다.

- ① 가장 이른 간기를 보이는 전운치전(1847년)에 사용된 각자체보다 더 고풍이다.
- ② 판식에 있어서도 반엽 12행과 13행이 순차적으로 혼재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촘촘한 후대형보다 선행한 것으로 보인다.
- ③ 어미에 있어서도 상하화문어미라는 독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④ 정조명찬의 임충민공실기가 1791년에 간행되었는데, 1840년이라면 잘못된 소설 내용을 정정할 충분한 시간적 거리가 확보되어 있었던 셈인데 착오를 정정한 형태가 아니다.
- ⑤ 보각의 흔적을 많이 볼 수 있다. 1840년에 판각된 것이라면 이렇게 많은 보각이 생겨났을 리 없다.

35) ‘朝鮮國諺譯事 記’로 보인다.

당이 세워진 사실'이 나타난 점으로 미루어 성립할 수 없는 해석이 되겠다. 이로, 간기를 판각의 간기로 보는 것이 옳겠다. 더구나 '歲庚子孟冬'에 후행하여 京畿開板이란 말이 있음도 이를 방증해주는 자료라 하겠다.

이로 이 둘의 관계를 정리하면, <연대45장본>과 같은 내용의 <조선어 학습교재본>이 18세기 전반에 이미 존재하였고, 이를 판각한 것이 1780년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이상의 근거로 18세기에 존재했던 『임경업전』의 원형을 추론해보자면, 현전본 중, 비교적 장편에 속하는 본인 <외무성장판본> 혹은 <연대45장본>과 흡사한 면모를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독립된 경로를 통하여 현전하게 된 두 본이 모두 18세기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내용도 거의 완벽히 일치하고 있다는 점으로써이다.

## 6. 結

본고의 목적은 『임경업전』의 발생과 유통에 관련한 자료에 기반하여 그 最先本을 추정해 보는데 있었다. 이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원형 혹은 그 원형에 가장 가까운 最先本을 추론하는데 있는 것은 그것이 작품의 본질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영성하나마 내려진 결론은, 『임경업전』의 발생은 1700년대 전반기의 어느 즈음이고, 발생에 가장 가까운 最先本은 보수적 세계에서 계승되어 왔을 일본 외무성장판본의 저본과 1780년대에 최초 판각되었을 연세대본일 것이란 것이다.

36)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이화여자대학출판부, 1985.

## 참고문헌

### <자료>

- 연세대학교 소장 『임경업전』45장본.  
일본외무성장판본 『임경업전』(1881), (김의정, 『역사소설 임경업전 연구』도서출판 솔터, 1992 의 부록 영인본).

### <참고문헌>

- 권두환,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제94회 학술발표회 요지>(2004.4.29).  
김기현, 『校注 林將軍傳』, 예그린출판사, 1975.  
김의정, 『역사소설 임경업전 연구』도서출판 솔터, 1992.  
김태준, 『조선소설사』, 학예사, 1939.  
上垣外憲一, 『雨森芳洲 元祿享保の國際人』, 중공신서 945, 중앙공문사, 1989.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5.  
松原孝俊 外, 『雨森芳洲と對馬藩「韓語司」設立經緯をめぐって』, 『日本研究』第12輯, 中央大學校 日本研究所, 1997.  
윤영옥, 「임경업전연구」, 『국어국문학연구』15집,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3.  
이복규, 『林慶業傳研究』, 집문당, 1993.  
이윤석, 『임경업전연구』, 정음사, 1985.  
이창현, 『경관 방각소설 판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임충민공실기』, 조선광문회 중간, 1913.  
정병설, 「조선후기 동아시아 어문교류의 한 단면」, 『한국문화』27,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01.  
조희웅, 松原孝俊 「淑香傳」의 형성연대제고, 일본측 자료를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12, 한국고전문학회. 1997.  
片茂鎮, <東京外國語大學所藏の「交隣須知」>, 梅田博之教授 古稀記念論叢, 2001.



## A Study on the Origin of "Imgyoungup chun"

Park, Jae-min

This paper aimed at fixing the earliest version of "Imgyoungup chun" and guessing its original form by relating the version owned by Yonsei University with the version published at the Jap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cently Cho Heewoong, Chung Byoungsul, and Kwon Duhwan presented in series the research on the Amenomori's Korean studying. These research showed me that "Imgyoungup chun" existed in the age of Amenomori and made me reason that it affected on the version which was published in 1881 at the Jap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version of Yonsei University, which is the earliest version published in 1780, is similar to the version published at the Jap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ough these two versions had never affected each other directly. Putting these things together, I asserted that the two versions were formed independently in the same period and were most similar to the original form of "Imgyoungup chun".

I thought the discord between the colophon of the Yonsei University version and the time when Amenomori was dead is caused by the fact that the colophon is related to the time the text was engraved, not the time it was formed. 'Kyoung-gi press', which is noted just behind the colophon, made this hypothesis possible.